

「柳綠傳」의 構成論理와 小說史的 位相

余 世 柱

<目 次>	
I. 序 論	1. 작품의 敎訓性과 〈序〉
II. 作品의 構成論理와 意味	2. 작가의 創作意圖와 〈프롤로오그〉
III. 〈序·프롤로오그〉와 作品의 關係	IV. 小說史的 位相
	V. 結 論

I. 序 論

『유록전』은 원래 漢文本이 原典이었으나, 소설이 인기를 끌면서 상업적 가치를 얻게 되자 한글로도 번역되어 읽혀졌던 작품이다.

정상적인 부부가 되기 어려운 남녀가 이해타산을 떠난 애정 때문에 결합하고 시련을 겪는 것을 내용으로 한 소설이라는 점에서, 이 작품은 『동선기』, 『영영전』, 『운영전』 등 일련의 작품과 軌를 같이 하는 愛情小說의 하나로서 그 소설사적 위치를 차지해 왔다.¹⁾

그런데, 『柳綠傳』은 애정 때문에 만난 남녀주인공이 피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에 의해 서로 헤어져 온갖 고난을 겪다가 이를 극복하고 다시 만나 온전한 애정을 성취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지만, 작가의 문제의식이 애정 자체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다. 말하자면, 주인공의 행위 목표나 지향가치가 애정의 추구라는 단일한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삶의 자세 문제에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삶의 자세라는 보다 큰 문제 속에 애정적 만남과 시련 극복이라는 단일 행위를 걸게 삽입시킴으로 해서, 앞서 언급한 애정소설과는 特異한 構成을 보여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록전』은 일단 주목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작품에 대한 개별적인 작품론이 지금까지 한번도

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서울, 지식산업사, 1984), 503~504쪽 참조.

2 嶺南語文學(第14輯)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럼으로 해서 作品의 構造나 小說史的 位相이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원전이라고 생각되는 한문본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원전을 대상으로 하지 못한 연구는 그 불완전성을 면할 수 없지만, 단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연구의 대상에서 언제까지나 제외시켜 둘 수는 없다. 더구나, 「柳緣의 恨」이란 表題를 지닌 국문본이²⁾ 한문본 원전을 “그대로 번역한 작품”³⁾이라 한다면, 더이상 그 연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설사 「柳緣의 恨」이란 번역본이 상당한 부분에서 원전을 變改시킨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構成論理를 分析하여 작품의 構造의 特徵과 그 表現意味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작품의 小說史的 位相을 밝혀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本考의 작품 자료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 唯一本인 新舊書林版(1914년) 『柳緣의 恨』을 사용했다.

II. 作品의 構成論理와 意味

소설 작품의 의미는 줄거리가 어떠한 논리로 구성되어져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줄거리의 구성논리에 대한 분석과 이해는 소설의 짜임새에 대한 해명이면서 작품의 의미 규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방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작품의 구성논리를 읽어내기 위하여 줄거리를 단락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仁祖朝의 名士 鄭夢世는 女色을 멀리하고, 또 功名을 뜯구름처럼 이겨 벼슬길에도 나가지 않고 詩酒琴書로 세월을 보내며 살았다.
- (나) 少年才子들이 베품 宴席에서 吳柳緣이란 기생을 만나 흡모하여 百年佳約을 맺었으나, 거듭되는 고난 때문에 어렵게 애정을 성취했다.

2) 「柳緣의 恨」(新舊書林, 1914): 《舊活字本 小說叢書 古典小說 7》, 서울, 民族文化社, 1983.

3) 金起東, 《李朝時代小說論》(서울, 二友出版社, 1981), 400等.

- ① 寶席에서 유록을 만나 흠토하게 되었고, 그래서 유록을 찾아가 백년가약을 맺었다.
- ② 황해도 곡산 지방에 民擾가 일이나 곡산 府使로 除授됨으로써 이들은 뜻하지 않게 이별하게 되었다.
- ③ 병자호란이 일어나 수많은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또 잡혀갔는데, 유록도 끌려가게 되어 이들의 만남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 ④ 유록은 도중에 탈출하여 평양 義妓 계월향의 혼령의 도움을 받고 의주의 어느 절에 익숙해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무뢰한들에 의해 겁탈 당할 위기를 맞자 강물에 뛰어들었다.
- ⑤ 벼슬을 사직하고 유록을 찾아나선 정몽세는 계월향의 혼령의 도움을 받아 유록을 구출, 해후한 후, 유록의 권유로 의주 府尹이란 벼슬 자리에 다시 올라 못다한 애정 생활을 영위했다.
- (다) 공조참판으로 內職에 승진되었으나,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유록과 함께 悠悠自適하며 餘生을 보냈다.

줄거리 (가)는 序頭에 해당하고, (나)는 中間이며, (다)는 結末이다. 소설은 애초에 설정된 어떤 상황에, 여러 가지 힘이 가해져서 역동적인 변화를 겪다가, 어떤 새로운 상황으로 귀결되는 이야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줄거리 (가)는 애초에 설정된 상황이며, (나)는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이고, (다)는 새로운 상황으로의 귀결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원리에 따라 본 작품을 읽어 볼 때, 줄거리의 전개적인 흐름은 남주인공 정몽세의 삶이 보여 주는, 그 變貌의 軌跡에 따라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에서는 愛慾과 벼슬살이를 外面한 채, 世俗에 얹매이지 않으려는 삶을 살고자 했으나, (나)에서는 애정의 성취를 삶의 가장 큰 보람으로 삼으면서 뜻하지 않게 벼슬길에도 나가게 되는 삶의 변화를 겪게 되었고, 그러다가 (다)에서는 결국 애정의 성취를 통한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벼슬을 청산하고 산림처사로서 더 물러 살고자 하는 쪽으로 귀착하게 된다.

그런데, 本作品의 全體的인 展開가 남주인공의 삶의 궤적에 따라 전전되고는 있지만, 작품의 제목이 말해 주는 바와 같이 작가의 관심은 애정을 통한 만남과 이별에 의한 여주인공 유록의 고난에 집중되어 있다. 애정을 통한 만남과 이별의 고난을 서술한 (나)단락이 본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작가의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음을 분명하게 해 준다.

4 嶺南語文學(第14輯)

이처럼, 이 소설은 그 전체적인 구성논리로 보아 남주인공의 삶의 자세라는 보다 큰 문제를 다루면서 애정에 의한 만남과 시련에 작가의 관심이 끌려 있는 만큼, 이 두 측면을 깊이있게 천착하면서 작품을 분석하는 것이 作品構造의 意味를 해명하는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가)에 나타나 있는 정몽세의 삶의 태도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⑦ 일단 풍경이 업지 아니하나 흥상 경군에 부의 칠가 저히 혼야 비록 셔즈와 태진의 식을 떠나지라도 그 행담 흠이 비흘 데 업스니……(2쪽)⁴⁾

⑧ 마음이 청고 혼야 공명을 부운 것치 아는 고로 권문세가에 투족 흠이 업고 쓰 과업을 폐호 앗더니 넌과 삼십이 넘은 후에 비로소 음관으로 레조파랑을 빙호 앗더니 즉시 벼슬을 바리고 시쥬금서로 세월을 보내더니……(2)

위의 引用文에서 보는 바, ⑦은 情慾을 外面한 삶의 자세인데, 남주인공 정몽세는 “일단 풍경이 업지 아니하나” 그것을 거부하며 살고자 했으니 철저하게 도덕적 삶을 살고자 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이미 주위에서 “사람이 혹은 괴벽다 혼며 혹은 비인정이라(2)”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니, 절대적인 진리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적 욕구를 거부하는 도덕적 의지이며 因習化된 固定觀念이다. 이미 가치관이 달라진 주변 현실을 외면한 채, 인습화되고 관념화된 도덕적 가치규범에 따르고자 하는 정몽세의 삶은 儒敎의 德目實踐일 수도 있고 佛教의 超越을 指向하는 자세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⑧의 태도는 官人으로서의 삶을 거부한 處士로서의 삶이다. 과거를 거치지 않고 다만 조상의 관록 덕택으로 얻던 평직인 薦官으로서, 예조좌랑에 임명되기도 했고 병조참의를 除授받기도 했으나, 공명에 뜻이 없고 당파싸움에 여념이 없는 조정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즉시 사임하고, 고향에서 詩酒琴書로 소일하며 떠물려 살고자 했다. 世波의 표면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草野에 파묻혀 살고자 했으니, 山林處士로서의 삶을 지향했다 할 것이다.

⑦⑧과 같은 (가)에서의 삶의 자세는 現世的인 日常人으로서의 삶을 拒否한 채 世俗에 얹매이지 않으려는 삶의 意志이다.

그런데, 정몽세의 이러한 삶의 의지는 (나)에 이르러 허무려지고 만다. 정육에 빠지지 않으려는 의지는 少年才子들이 베푼 宴席에서 기생 유록을

4) 팔호 안의 쪽수는 이 논문의 자료인 「柳緣의 憂」에 붙여진 쪽수를 나타내며, 앞 으로는 팔호 안에 숫자만 쳐기로 한다. 인용문의 되어쓰기는 筆者가 바로잡은 것이다.

만나자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고, 산림처사로서 살고자 하는 의지도 뜻하지 않게 무산되고 마는 것이다.

남주인공 정몽세의 삶이 (나)처럼 急變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김선전을 비롯한 소년재자들이 마련한 연회에 참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妓樂이 베풀어진 출자리에서 시를 주고 받다가 유록이란 妓女와 우연히 마음이 맞아 서로를 흡모하는 사이가 되었고, 그려자 김선전을 앞세우고 유록을 찾아가 백년가약을 맺게 되는 것이다.

女色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던 삶의 태도가 유록과의 만남에 의해 急轉하면서 심리적인 갈등이나 고민이 나타남직 하나, 그것에 대한 조금의 거부감이나 인식 조차 없이 애정 속에 몰입해 버린다. 사건 전개 논리상의 불완전성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急轉은 사랑의 성격을 말해 주는 상징성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사랑이란 인간의 도덕적 의지나 관념적 규범을 무색하게 하는 강렬한 힘을 가졌음을 한층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파악된다.

따라서, 작품 분량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출거리 (나)에서는 남녀주인공의 삶이 愛情의 成就를 가장 큰 보람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①은 애정 생활의 발단이고, ②③④는 이별의 고난이며, ⑤는 완전한 애정을 성취하는 단락이다.

애욕을 의연하는 삶과 벼슬길에 나가기를 거부하는 삶의 자세가 (가)에서는 별개의 문제였었는데, (나)에 와서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 즉, 남녀주인공의 삶이 애정 성취를 가장 큰 보람으로 삼으면서,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처사로서 살고자 하던 삶의 자세는 애정생활 속에 종속되고 좌우되고 있다. 처사로서의 삶의 태도가 그 자체의 갈등에 의해 변화를 겪는 것이 아니라, 애정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지켜지기도 하는 것이다.⁵⁾

이처럼, (나)에서 愛情의 成就라는 문제가 강조되어 있지만, 작가의 관심은 離別의 苦難인 ②③④의 서술에 치중되어 있다. ②③④는 온전한 애정생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어지기를 거부하

5) 애정 때문에 남주인공은 벼슬길에 나가기도 하고 벼슬에서 물러나기도 한다. 谷山府使로 除授되었을 때 정몽세는 유록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 벼슬을 사양하다가 유록의 段유를 받고 태도를 고쳐 부임했으며, 그러다가 禮曹參議로 승차하여 돌아왔으나 유록이 胡亂으로 인해 끌려갔다는 慘禍 소식을 듣고 그 죄책감 때문에 벼슬을 사퇴했고, 그 후 유록을 다시 만난 뒤 義州府尹으로 除授되었을 때도 유록의 段유로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벼슬길에 나갔던 것이다.

6 嶺南語文學(第14輯)

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시련이다. 거듭되는 시련 때문에 주인공들은 심각한 고난에 빠지게 되는데, 고난이 반복되어 나타나지만 그 비중은 서로 다르다. ②→③→④로 사건이 전개될수록 고난의 비중이 커지면서 계기적이고 겹친적인 苦難의 極大化를 가져온다. ②에서는 훗날을 기약한 잡정적인 이별로 인한 고난이므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③에서는 胡兵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감으로써 기약할 수 없는 이별이라는 시련을 가져왔고, 거기에서 오는 고난은 죽음을 결심할 정도로 심각해졌다.⁶⁾ 그러다가 ④에 이르러서는 정절, 즉 애정을 固守하기 위해서는 자살하지 않을 수 없는 극심한 고난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⁷⁾

겹친적인 극대화를 가져온 이러한 고난은 남녀주인공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고난의 주체는 역시 여주인공이다. 이는 作家의 關心이 여주인공의 고난에 훨씬 더 치중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면, 이 소설이 남녀의 만남과 행복보다는 헤어짐과 고난을, 만남의 결과보다는 만남의 과정을 더욱 정밀하게 그리고 비중있게 취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반복적인 고난을 겪을 시킴으로써 독자에게 지속적인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며, 수많은 시련을 겪은 후에 성취된 사랑이야말로 보다 값지고 고귀한 것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만남이나 행복의 가치는 헤어짐이나 고난을 통해서 相對的으로 認識되는 것”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남과 사랑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이별의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會者定離의 眞實을 깨우치고자 한 작가의 의도라고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의 다음 장에서 판가름되겠지만, 이 두 가지 해석 모두가 작가의 의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⁹⁾

6) 유록은 胡兵에게 끌려가던 도중 통군정에 이르렀을 때 죽기를 결심하기도 했다.

내 이세서지 구차 투성호은 형 혀 우리 상공을 혼번 다시 산낫흐로 서로 맛나불가
흐엿더니 이제는 만시 이의라. 내 오늘날 찰하리 몸을 창파에 던져 조결흔 귀신이
되리라. 이러탕 드움을 정하고……(49쪽)

7) 무뢰한들에게 겹 탈당할 위기에 처하자, 유록은 江心에 投身하고 마는데, 이때의
죽음이란 고난의 극한을 의미하는 것이다.

8) 林在海, 「金喜慶傳」에서 문제된 고난과 만남 : 《嶺南語文學》第 6 輯(대구, 嶺南語文學會, 1979), 134쪽.

9) 〈프롤로로그〉에 나타나 있는 작가의 창작의도를 파악하면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수용자는 이 두 가지 해석을 모두 작품의 표현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작품의

그런데, 이보다 더 주목해 둘 문제는 이 소설의 줄거리가 헤어짐의 고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만남의 행복보다는 헤어짐의 고난에 더 비중을 두고 있고, 만남의 과정보다는 만남의 과정을 더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만남의 과정인 헤어짐의 고난에 머무르지 않고 만남의 과정 즉 온전한 만남과 행복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단락 ⑤에서 온전한 만남 후의 행복을 꽤 길게 서술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나)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삶의 변화와 격동은 (다)에 이르러 또 한번의 변화를 가져온다.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詩酒琴書로 소일하며 悠悠自適하게 살고자 했던 處士로서의 삶이, (나)에서는 실현될 수 없었는데, (다)에서 다시 실현되고 있음이 그것이다.

(다)에서 工曹參判이라는 內職으로 벼슬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유록과 함께 자손을 두고 행복을 누리며 餘生을 보냈다고 종결지웠다. 정몽세는 家眷을 蓮花峰 舊宅에 安頓한 채, 유록과 함께 鄉第에 내려가 “구름 아래 밧갈고 들 아래 고기 낙가 청흔흔 사룸(108)”이 되어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作品 展開 論理를 통해 볼 때, 작가가 의식하고 있는 삶의 형태를 분명하게 포착해 낼 수 있다.

이 작품의 작가는 우선 人間의 本性的 慾求를 拒否하는 인습적이고 관념적인 삶보다는 인간 본성에 따른 愛情生活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認識한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애정보다 우선하는 삶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온전한 애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살고자 하는 삶 따위는 포기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온전한 애정을 성취하고 그 成就된 愛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보람일 뿐, 그 이상의 다른 무엇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애정이야말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숭고한 삶으로 인식되어져 있다. 그러면서, 愛情生活과 處士로서의 悠悠自適하는 삶이 상충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同時에 實現되어진 삶이 작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한 삶의 형태임을 작품구조는 보여준다.

따라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작가가 작품구조를 통해 표출, 인식하

표현 의미가 모두 작가의 창작의도일 수는 없다. 물론, 작가가 의식하지 못한 채 표현되어 있는 무의식적 의미도 작가의 창작의도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형태는, 정욕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인간의 본성적 욕구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고정관념적이고 경직된 자세가 아니다. 인간의 본성적 순리에 따른 애정생활과 처사로서의 유유자적하는 清閑한 삶의 자세야말로 작가에 의해 마침내 발견되고 인식된 숭고하고 참다운 삶이었다.

줄거리의 전개논리를 통해 형상화되어 있는 이러한 의미논리를 통해 볼 때 본 작품은 애정 그 자체만을 주제로 삼으려 하지 않고 애정을 삶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의의를 지닌다.

III. <序·프롤로오그>와 作品의 關係

「柳綠傳」에는 작품과는 別章으로 <류록의 혼서>가 작품 앞에 붙어 있고, 또 본격적인 줄거리의 전개에 앞서 작가 자신의 목소리로 제시해 놓은 <프롤로오그(prologue)>가 있어서 다른 고소설에서 보기 힘든 體制上의 特徵을 갖고 있다. 프롤로오그는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면서 붙여 놓은 것일 성실지만, 序는 작가의 말인지, 아니면 어떤 수용자가 작가의 부탁을 받고 써 준 것인지, 또는 출판업자가 결들여 놓은 말인지 도무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序>나 <프롤로오그>가 누구의 말이든 상관할 바 없이, 독자들이 작품을 읽으면서 작품의 무엇을 눈여겨 보고 무엇에 유념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록전」에 대한 보다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序와 프롤로오그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앞장에서 이루어진 작품 분석 결과와 견주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이미 분석된 作品의 意味를 檢證하고 確認하는 일이기도 하므로 당연히 중요한 의의를 지닐 것이다.

1. 作品의 敎訓性과 <序>

<序>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문 인용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⑤ 사람이란 天地陰陽之氣를稟受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남녀의 본분은 자연의 이치인데, 남자의 본분은 孝行이고, 여자의 행실은 節介가 으뜸이다.

⑥ 여자는 아무리 美色이 뛰어나더라도 그 행실이 온전하지 못하면 비난을 면하지 못하므로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⑤ 걸치장이 醜陋한 여염집 여자가, 걸치장이 비할 데 없이 아름다와 欽美할 만한 媚妓들을 보면 도리어 더럽다 하여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여염 여자들의 걸모습이 비록 醜陋하나 몸이 精하기 때문에 걸치례는 화려하지만 몸이 정하지 못한 창기를 업신여기는 것이니, 여자의 근본은 다만 그 몸이 精함에 있는 것이다.

⑥ “류록은 몸이 비록 창기이나 능히 절행을 지히여 몸을 정히 헤야 췄다온 일 흠이 후세에 전호얏스니 엊지 아름답지 아니리요. 바라진디 이 칙 보시는 니는 류의 훌지이다.”

위에서 간추려 정리한 序의 내용에서 정작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⑤이다. ⑤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주장을 짚게 펼쳐 놓았다.

여주인공 유록의 節行을 높이 평가하고 내세우고자 했다. 媚妓란 혼히 貞節을 美德視하지 않기 때문에 수없는 업신여김을 받는 부류에 속하지만, 유록은 절행을 지켜서 미덕을 남겼다고 하면서,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독서하라 했다.

우리 고소설에 등장하는 여주인공들이 모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이 작품에서도 여주인공 유록의 정절이 높이 강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 전개에 관계없이 여주인공 유록을 중심으로 이 작품을 읽는다면, 유록의 節行이 상당한 감동과 교훈을 줄 수 있다. 평양 義妓 桂月香의 혼령이 유록을 계속 隱助할 만큼 유록은 예사 기생과는 다른 節行을 보여주고 있으며, 계월향 만큼이나 높이 평가될 만한 미덕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정절이라는 도덕성이 아니다. 말하자면, 序에서 독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여주인공 유록의 節行에 대한 提高가 「유록전」의 궁극적인 주제나 문제의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작가가 유록의 절행을 줄곧 강조하곤 있지만, 작품의 주된 문제로 다루려고 한 것 같지 않을 뿐더러, 작품의 구성논리도 그렇게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설의 末尾에서, 유록의 절행이 조정에 알려져 貞烈夫人의 職牒를 받았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우리 고소설 일반이 지닌 문학적 관습이지 작품구조가 이끌어 낸 귀결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作品構造의 全體的 脈絡 속에서 파악할 때, 유록의 貞節固守는 곧 정몽세에 대한 愛情의 確認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 정몽세를

만나게 된 후, 稱病하면서 손님을 받지 아니했고, 무뢰한들에게 겁탈 당할 위기에 처하자 정절을 지키기 위해 강물에 투신하는 등의 정절 고수 행위는 애정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절을 빼앗으려는 세계와 정절 그 자체의 고귀성을 지키기 위한 서사적 자아와의 대결을始終一貫 지속적으로 부각시키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序>는 대부분의 古小說 作家가 작품의 교훈성을 강조하여 작품의 마지막 문장에 표방해 놓던, 세상의 風化·風教를 위한 관습적인 발언과 다를 바 없다. 즉, <序>는 小說無用論에 구애된 작가들이 의식적으로 내세우던, 小說의 世教的 價值를 憑藉한 [관습적인]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 作家의 創作意圖와 <프롤로오그>

작품의 意味解釋은 작가가 곁으로 표방해 놓고 있는 창작의도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작품의 表現意味와 創作意圖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本作品의 <프롤로오그>에는 작가의 小說創作意圖가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序>의 내용과는 전혀 無關하다.

그럼, 프롤로오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남녀의 만남이 있는 곳에는 사랑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친함이 있으며, 친함이 있기에 정이 깊어진다.

② 정이 깊어지면 헤어지기를 거부하지만, 이별이 생기지 않을 수 없고, 이별하게 되면 애가 끊어지고 혼이 사라지게 되며, 한숨 짓고 눈물 뿌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③ 이는 사람에게 七情이 있고 七情이 있음에 그 뿌리가 있어 情恨에 한 번 부딪히면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인데, 億千萬劫에 그 輪迴報應을 능히 免하는 자 몇 인가.

④ “이에 혼 일을 좌에 기록하야 시방세계 다정혼 자에게 깊히 경계해야 써 곰 정근의 부되치지 말게 해노라.”

위에서 정리해 본 프롤로오그의 내용은 佛教의 思惟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쉽사리 알 수 있다.

⑤ 은 八苦의 하나인 愛別離苦, 즉 이별의 고통을 말한 것으로서, 迷한

세계의 轉變은 끝이 없어서 서로 반난 이는 이별하게 되고 그 이별은 반드시 수많은 苦를 가져 오게 된다는 應報를 밝혔다. ⑤은 ⑦⑧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한 것인데, 사람에게는 喜·怒·憂·懼·愛·憎·慾의 七情¹⁰⁾이 있고 거기에는 뿌리가 있어서 그 情根에 일단 부딪히면 헤어나지 못하게 되어, 결국 苦의 응보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¹¹⁾

그래서, ⑥에서는 한 편의 소설을 써서, 十方世界의 多情한 사람들이 情根에 부딪히지 않도록 경계한다고 하여 소설의 창작의도를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情根이란 七情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에 집착함을 의미하는데,¹²⁾ 특히 愛別離苦의 계기가 되는 女色에의 집착을 두고 한 말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愛別離苦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女色과의 만남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작가가 프롤로오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며, 女色과의 만남과 사랑이 얼마나 많은 번뇌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문제를 보여 주고 이를 경계하기 위한 본보기로 제시해 놓은 것이 「유록전」인 것이다.

따라서, 본 작품에서 만남의 행복보다는 헤어짐에서 오는 苦難을 더욱 정밀하고 자세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은, <프롤로오그>에서 제시해 놓고 있는 이러한 창작의도에 근거한다고 하겠다. 오유록과 정몽세가 겪어야만 했던 愛別離苦를 본보기로 삼아, 十方world의 다정한 사람들이 숫제 愛別離苦의 계기조차 만들지 말도록 하자는 것이 프롤로오그에 나타나 있는 작자의 創作意圖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언급해 둔 바와 같이, 작품은 남녀의 만남이 가져다 준 헤어짐의 고통 즉, 愛別離苦만을 보여주는 비극적 결말로 종결되지 않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온전한 만남을 이루려는 주인공의 의지가 강조되면서 온전한 만남의 행복을 보여 주는 것으로 끝맺어진다. 작품 속에 愛別離의 苦痛을 표현하여 독자들이 女色에 집착하지 않도록 깨우치고 경계하고자 했는데

10) 유록이 의탁하고 있던 절의 월정 스님과의 대화(63쪽)에서는, 七情이 유교에서 말하는 喜·怒·哀·樂·愛·惡·慾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교의 七情과 그 작용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는 없지만, 佛教의 七情에 대한 没理解로 인하여 빚어 진 번역자 또는 작가의 오류인 듯하다.

11) 이러한 생각은 여주인공 유록의 思考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류론의 혼」, 62~63쪽 참조.

12) 「류록의 혼」 63쪽 참조.

정작 작품의 귀결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¹³⁾

그렇다면, 프롤로오그에서 밝혀 놓은 작가의 創作意圖와 作品의 實相은 서로 어긋나 있는 모순인 것 같다. 그러나,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 이별의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情根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헤어짐의 고통을 초래하는 남녀의 만남과 애정 그 자체를 무조건 부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종교가 삶 자체를 부정해서 죽음을 찾는 것이 아니듯이, 만남을 부정하는데서 찾으려 하는 것은 고통이 따르지 않는 보다 이상적인 애정이라 할 수 있다. 극도의 부정은 궁정이듯이, 만남을 부정하는 것은 만남과 애정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궁정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고, 보다 온전한 만남과 애정을 원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녀의 만남과 사랑은 뿌리칠 수 없는 고통을 낳으므로 아예 만남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프롤로오그의 論理는, 사실상 헤어짐의 고통이 따르지 않는 만남과 사랑에의 강한 욕망과 기대심리가 역설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게 된다.

헤어짐의 고난을 길고 상세하게 다루면서도 그것을 극복한 만남의 행복을 강조, 지향하고 있는 愛情의 構造도, 이러한 측면에서 설명되고 해명될 수 있다고 본다.

IV. 小說的 位相

지금까지, 작품 분석을 통하여 「柳緣傳」의 構造的 特徵과 論理體系를 규명함과 동시에 그러한 서사구조가 표현하고 있는 意味를 밝히고 검증해 보았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이 작품이 우리 小說史의 흐름에서 어떠한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짚어보자 한다.

「柳緣傳」은 우리 문학사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다가, 조동일의 《한국문

13) 이처럼, 프롤로오그와 작품의 실상은 어긋나 있기 때문에, 프롤로오그는 독자들이 이 작품의 구조적 의미를 온전하게 파악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일종의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 <序>나 <프롤로오그>의 내용을 작품 분석에 앞서서 검토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프롤로오그의 선입견에 빠져들지 않기 위함이었다. 문학작품은 보는대로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있는 대로 보는 것이 연구자에게는 더욱 중요한 때문이기도 하다.

학통사》에서 처음으로 소설사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¹⁴⁾ 곧, 이 작품은 「周生傳」, 「崔陟傳」과 같은 전례를 이어 나타난 「洞仙記」, 「英英傳」, 「雲英傳」 등 일련의 작품과 함께 愛情小說의 하나로서 그 문학사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있다. 이들 작품은 자체 높은 귀공자가 자기 배필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기생이나 궁녀와 열렬하게 사랑한 사연을 공통적으로 다루었기에 한 유형으로 끌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록전」은 이러한 점에서 이들 작품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이들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다. 「동선기」, 「영영전」, 「운영전」과 같은 소설은 남녀의 만남과 애정, 그리고 그것의 성취를 위한 시련이라는 단일 행위만을 작품 줄거리의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비해, 「유록전」에서는 이러한 단일 행위가 삶의 태도라는 보다 큰 문제 속에 내포되어 있음이 이를 말해 준다. 앞에서 분석한 줄거리 단락 (나)가 (가)와 (다)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나) 때문에 愛情小說일 수 있고 (가)와 (나)가 더 침가되어 있기에 이에서 벗어난다.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외면하고 이미 因習化되고 觀念의 道德規範에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남주인공이, 가치관이 다른 어떤 인물의 중개역할로 妓女인 여주인공을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그가 지켜온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애정소설과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구의構造를 통해 볼 때, 「유록전」은 오히려 「三仙記」, 「鍾玉傳」, 「烏有蘭傳」, 「裴婢將傳」과 같은 이른바 殿節型 世態小說¹⁵⁾에 근접한다. 妓女와 만나 사랑에 빠짐으로써, 남주인공이 固守하려던 삶의 태도가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基本骨格으로 삼고 있기에, 「유록전」과 「체결형 세태소설」은 근본적인 類似性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14) 조동일, 『앞의 책』 같은 곳 참조.

15) 이원수는 「삼선기」의 종합적 고찰 : 《文學과 言語》 7집(대구, 문학과 언어 연구회 1986)에서 「때의 장전」, 「오유란전」, 「종우전」, 「삼선기」 등은 殿節播話가 작품의 핵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체결형」이란 명칭을 붙이고 있다. 필자가 「유록전」을 이들 작품과 관련지워 다루는 데 있어서 이원수의 이 논문은 示嗟해 주고 도움 준 바가 많다.

‘체결소설’이란 명칭은 조동일의 《한국문학通사》 3 (508~513쪽)에서 이들 작품에 붙여진 이름이다.

필자가 ‘체결형 세태소설’이라 하여 이들의 두 명칭을 통합하여 사용한 것은 ‘체결형’이 이들 소설의 형식상 특징을, ‘세태소설’이 이들 소설의 내용상 특징을 잘 드러나 주는 명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록전」이 애정 그 자체만을 문제삼지 않고, 애정생활을 삶의 문제와 관련시켜 다루면서 현실적인 삶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애정소설과는 다른 주목할 만한 變化라 하겠다. 관념적 도덕규범을 거부하는 애정생활을 현실적인 삶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적 사고에 바탕을 둔 現實主義的 認識이 어느 정도 작품 속에 용해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여기에서, 觀念主義가 무너지고 經驗的이고 現實主義의인 價值觀이 어느 정도 대두되기 시작한 시대적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¹⁶⁾

이런 점에서도, 「유록전」은 훼절형 세태소설들이 바탕을 두고 있는 현실주의적 세계관에 좀더 가까이 접근한다.

뿐만 아니라, 人物設定에 있어서도 훼절형 세태소설과 비슷한 면이 있다. 남주인공과 기녀,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맺어주는 또 하나의 남성인물을 기본 설정으로 삼아, 사건을 전개시켜 나간다는 점이 그것이다.

지체 있는 사대부와 기녀 또는 궁녀와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소설이 하나이 계열을 이루면서 애정소설의 새로운 면을 개척했는데,¹⁷⁾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사대부와 기녀의 만남과 사랑을 애정소설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용한 것이 「柳緣傳」이다. 그런데, 사대부와 기녀의 만남과 사랑이 그 자체의 의의는 상실되고 단순히 관념적이고 도덕적인 인물을 훼절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됨에 이르러 훼절형 세태소설이 새롭게 마련된다. 그래서, 「유록전」과 훼절형 세태소설에서는 사대부에 속하는 男主人公과 妓女의 만남을 마련해 주는 또 하나의 男性人物이 개입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관념적인 남성과 현실적인 남성, 그리고 기녀가 사건 전개의 핵심 인물로 설정되어 지는데, 이 점에서 「유록전」은 훼절형세태소설과 인물설정상 공통점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록전」에서는 妓女가 제 2의 인물임에 반해, 훼절형 세태소설에서는 제 3의 인물로 설정되어져 있다. 「유록전」에서는 남주인공과는 가치관이 다른 한 남성이, 남주인공과 여주인공 기녀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 3의 보조인물로 나타나는데, 이와는 달리 훼절형 세태소설에서는 상반되는 가치관을 지닌 전형적인 두 남성 사이에 기녀가 제 3의 보조인물로 개입

16) 이러한 측면에서 「유록전」은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남녀주인공을 蘭降人物로 설정한 것(54쪽)이나 桂月香의 혼령이라는 초경험적 존재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설정은 일종의 담습이다.

17) 조동일, 《앞의 책》 같은 곳 참조.

되어 어느 하나를 폐절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¹⁸⁾

이처럼, 인물의 역할이 달라짐에 따라, 작품의 문제의식도 달라지게 된다. 「유록전」에서는 김선전을 비롯한 少年才子들이 별다른 목적없이 妓樂을 이끌고 베풋 연회석에서 유록과 정동세의 자연스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김선전이 이들의 사랑이 떨어질 수 있도록 중매자의 역할만 감당한다. 이에 비하여, 폐절형 세태소설에서는 현실주의적인 한 남성이 관념적 도덕규범에 얹여 있는 남주인공을 폐절시킬 목적으로 기녀와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록전」에서는 남녀간의 만남을 통하여 애정 그 자체를 긍정하고 강조하는 데에 작가의 관심이 주어져 있고, 폐절형 세태소설에서는 남녀간의 만남을 폐절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남주인공의 優善的二重人格이나 관념적 가치규범에만 맹종하는 고지식함, 또는 관념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데에 작가의식의 일환이 있다.¹⁹⁾

그런 만큼, 「유록전」에서는 妓女와의 만남과 愛情이 崇高한 것으로 美化되고 승화되어 있는 데 비해, 폐절형 세태소설에서는 草樂의이고 보다 卑俗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²⁰⁾ 「삼선기」에서는 妓女와의 만남과 애정이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폐절의 방편으로 이용됨으로써 보다 비속한 차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종우전」에서는 애정이 그 밑 바탕에 깔려 있되, 폐절의 방편으로 이용되면서 더욱 비속한 차원으로 인식되어져 있다. 그러다가, 「오유란전」에서는 기녀와의 만남이 폐절의 수단인 동시에 惡戲의 형태로 이용되고, 「배비장전」에서는 철저하게 惡意的인 骨稽의 수단으로까지 格下되어 있는 것이다.

18) 폐절형 세태소설의 人物設定 문제는, 이원수, 앞의 논문:《앞의 책》137쪽을 참조할 것.

19) 이원수는 앞의 논문에서, 「배비장전」, 「오유란전」은 優善的二重人格을, 「종우전」은 관념적 가치규범에만 맹종하는 고지식함을, 「삼선기」는 관념주의 전체를 비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비판이 작품구조의 총체적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후고로 미룬다.

20) 「배비장전」에서 「유록전」에 이르기까지, 기녀와의 만남이 폐절수단인 惡意的인 못된 정난에서 승고하고 미화될 애정으로까지 卑俗한 것에서 승고화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규명하여야겠지만, 본고에서는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일단 상세한 논의는 할애해 두기로 한다. 폐절형 세태소설의 문학사적 전개를 이러한 시각에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李石來 교수가 이미 이를 성과에서 시사받은 바이므로 이를 보다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재론하고 비판하여 새롭게 정리해야만 발전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李石來, 「古典諷刺小說概觀」:《성심여대 논문집》9집, (1978) 참조.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볼 때, 「柳綠傳」은 「동선기」, 「영영전」, 「운영전」과 같은 소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작품세계를 마련하고 있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그러면서, 이러한 작품세계는 곧, 관념적인 도덕규범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고 경험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毀節型 世態小說에 균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柳綠傳」은 「동선기」, 「영영전」, 「운영전」 등의 애정소설과는 다른 차이를 보이면서 채절형 세태소설에 접근하고 있는 작품이다.

결국, 「柳綠傳」은 「동선기」, 「영영전」, 「운영전」 등의 愛情小說과 「삼선기」, 「종옥전」, 「오유란전」, 「배비장전」 등 毀節型 世態小說의 中間의 作品形態로서 매우 중요한 소설사적 위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재인식되어야 할 것이다.²¹⁾

V. 結論

「유록전」은 「동선기」, 「영영전」, 「운영전」 등과 軌를 같이하는 애정소설의 하나로서 그 소설사적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삶의 자세라는 보다 큰 문제 속에 애정적 만남과 시련 극복이라는 애정소설적 구조를 길게 삽입시킴으로써, 애정소설과는 다른 구성 양상을 보여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작품은 본격적으로 문제삼을 필요와 가치가 있었다.

따라서, 이 작품의 구성논리를 분석하여 작품의 구조적 특징과 그 표현의 미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작품의 소설사적 위상을 밝혀 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었다.

우선, 이 작품 출거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남주인공 정몽새의 삶이 보여 주는, 그 變貌의 軌跡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짚사리 알 수 있다. 즉 작품의 '序頭'에서는 애욕과 벼슬살이를 의연한 채 세속에 얹매이지 않으려는 삶을 살고자 했으나, '中間'에서는 애정의 성취를 삶의 가장 큰 보람으로 삼으면서 뜻하지 않게 벼슬길에도 나가게 되는 삶의 변화를 겪게 되었고 그러다가 '結末'에서는 결국 애정 성취를 통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벼

21) 「유록전」을 소설사적으로 위치시키는 데는 여러 측면에서 깊이 있고 풍부한 논증이 있어야 하므로, 본고에서는 어디까지나 작품 형태적 위상만 지적해둔다. 현재로서는 기녀와의 만남과 사랑을 비속한 것에서 중고한 것으로 인식하는 쪽으로 소설사는 전개되었을 것이라 추론될 뿐이다.

술을 청산하고 산림처사로서 머물러 살고자 하는 쪽으로 귀착하게 된다.

이러한 작품 구성 논리를 통해 볼 때, 본 작품의 작가는 우선 인간의 본성적 욕구를 거부하는 인습적이고 관념적인 삶보다는 인간 본성에 따른 애정 생활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애정보다 우선하는 삶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온전한 애정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초야에 묵혀 살고자 하는 삶 따위는 포기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면서, 애정 생활과 처사로서 유유자적하는 삶이 상충하지 않는다면, 이 둘이 동시에 실현되어진 삶이 작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한 삶의 형태임을 작품구조는 보여 준다.

<序>와 <프롤로오그>에는 독자들이 작품을 읽으면서 작품의 무엇을 눈여겨 보고, 무엇에 유념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분석된 작품의 의미를 검증하고 확인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序>에서는, 유록이 비록 媚妓였지만 節行을 지켜 후세에 美德을 남겼다고 하면서, 讀者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독서하라고 했다. 序의 이러한 내용은, 작품의 구조적 의미와는 관계없이 作品의 教訓性을 말해 놓은 것이다. 즉, 小說無用論에 구애된 작가들이 의도적으로 내세우던, 소설의 世教의 價值를 빙자한 관습적인 말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프롤로오그>에서는, 작품의 創作意圖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사람에게는 七情이 있는데, 그 情根에 한번 부딪히면 헤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특히 愛別離苦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한 颤의 소설을 써서 十方世界 多情한 사람들을 경계한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情根이란 愛別離苦의 계기가 되는 女色에의 집착을 의미하는데, 女色과의 만남과 사랑이 얼마나 많은 번뇌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문제를 보여 주고 이를 경계하기 위한 본보기로 제시해 놓은 것이 「유록전」인 것이다. 그렇다면 본 작품에서 만남의 행복보다는 헤어짐에서 오는 고난을 더욱 정밀하고 자세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이러한 프롤로오그의 창작의도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은 남녀주인공이 겪어야만 했던 愛別離의 苦痛만을 보여 주는 비극적 결말로 머물러 있거나 종결되지 않고, 고난을 극복하고 이룬, 온전한 만남의 幸福을 보여 주는 것으로 끝맺어진다. 작품 속에 愛別離의 苦痛을 표현하여 독자들이 숫제 女色에 집착하지 않도록 깨우치고자 했는데, 작품의 歸結은 정작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프롤로오그와 작품의 실상은 모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남녀의 만남과 사랑은 뿌리칠 수 없는 고통을 낳으므로 아예 만남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작가의 논리는, 이별의 고통이 없는 이상적 사랑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역설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설명될 수 있다.

『유록전』은 관념적 도덕규범에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남주인공이 기녀와 만나 사랑에 빠짐으로써, 그의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기본적인 골격으로 삼고 있기에, 愛情小說과는 다른 變移를 보이면서 毀節型 世態小說의 형태에 接近한다. 그리고, 관념을 거부하는 경험적이고 현실주의적 인식이 작품 속에 용해되어 있다는 것도 애정소설과는 다른 점이고 체결형 세태소설과 비슷한 점이다. 뿐만 아니라, 남주인공과 기녀만을 중심인물로 삼지 않고, 이들의 관계를 맷어 주는 또 하나의 남성을 개입시켜 人物의 基本設定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애정소설과는 다르고 체정형 세태소설과는 유사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柳緣傳』은 愛情小說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毀節型 世態小說에 接近하고 있으니, 이 두 유형의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中間의인 作品形態로서 매우 중요한 소설사적 위상을 차지하는 작품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유록전』에 대한 이러한 小說史의 位置解明은 어디까지나 形態의인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앞으로 社會史的·哲學的 측면에서 보다 깊이 있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대부와 기녀와의 만남을 다른 애정소설과 이들의 만남을 또 다른 차원에서 이용한 체결형 세태소설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대해 나가야, 『유록전』의 소설사적 위치가 보다 확고하게 해명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논의는 필자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일단 미루어 둔다.